

### 골전이가 동반된 갑상샘암에 대한 임상적 고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도미영★, 이준호, 이유미, 안철우, 차봉수, 김경래, 이현철, 임승길

갑상샘암의 골전이는 폐전이 다음으로 흔하다. 골전이의 발생률은 암종에 따라 다른데, 소포암종에서 유두암종, 역형성암종에서 보다 많이 발생하고 보고에 따라 7%에서 23%까지 이른다. 이러한 골전이가 있는 경우 다른 종류의 암과 달리 비교적 장기간 생존률도 높고, 골전이 부분의 완전 절제술로 고무적인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골전이의 임상상을 알아보고 골전이의 진단 시기가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자들은 1986년부터 2004년까지 21명의 갑상샘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골전이가 갑상샘암과 함께 진단된 환자는 12명(57%)이고 갑상샘암을 치료 한 후 골전이가 진단된 환자는 9명(43%)이다.
- 2) 골전이가 동반된 암종은 소포암종이 132명 중 5명(3.7%), 유두암종이 3145명 중 11명(0.3%)이었고 Odds ratio가 11.24( $p<0.001$ )로 소포암종에서 골전이의 동반이 11.24배가 높았다.
- 3) 골전이는 갑상샘암 진단 당시에 발견된 경우가 12명 (57%)이고 13년 후에 발생하기도 하였다.
- 4) 골전이의 증상은 86%에서 요통, 하지통, 하지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14%는 무증상으로 고 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경과관찰 중에 골전이가 진단되었다.
- 5) 골전이에 대한 치료로는 수술적 제거, 외부 방사선조사, 동맥색전술 등을 시행하였다.
- 6) 골전이가 갑상샘암과 함께 진단된 6명과 갑상샘암 치료 후에 골전이가 진단된 6명의 생존률 비교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갑상샘암의 치료와 관계없이 골전이의 진단시기에 따른 생존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되지만 대상환자 수를 늘려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 근력 약화로 인한 활동 저하가 골밀도 감소에 미치는 영향

건양외대 내과학교실, <sup>1</sup>전북외대 내과학교실, <sup>2</sup>원광외대 내과학교실

최은경\*, 박근웅, 배장호, 허규찬, 백흥선<sup>1</sup>, 박태선<sup>1</sup>, 박지현<sup>1</sup>, 조정구<sup>2</sup>, 박병현<sup>2</sup>

목적: 근력 약화로 인한 활동의 저하는 골밀도 감소를 초래하여 골절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상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뇌졸중환자를 대상으로 상지, 하지 및 척추의 골밀도를 측정하여 활동 저하에 의한 골밀도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뇌졸중 환자 74명 (남자 45명 여자 29명, 평균연령 55.7세, 평균 유병기간 26.8개월)을 대상으로 척추 및 양측의 요골과 대퇴골에서 골밀도를 측정하였다. T-score를 이용하여 유병기간에 따른 골밀도 차이와 상지 및 하지의 기능에 따른 골밀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성적: 1) 요골의 T-score는 이완측  $-1.38\pm1.98$ , 비이완측  $-0.58\pm1.39$ 이었으며, 대퇴골은 각각  $-0.66\pm1.54$ ,  $-0.14\pm1.39$ 로 요골과 대퇴골 모두에서 이완측이 비이완측에 비하여 낮았다( $p<0.05$ ). 2) 유병기간을 6개월 미만, 6-24개월, 24개월 이상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이완측 골밀도의 T-score에서 비이완측의 T-score를 뺀 값이 대퇴골에서는 각각  $-0.07$ ,  $-0.65$ ,  $-0.61$ 이고, 요골에서는  $-0.12$ ,  $-0.73$ ,  $-1.06$ 으로 유병기간 6개월 이상인 환자군에서 6개월 미만에 비하여 이완측의 대퇴골 및 요골의 골밀도가 낮았다( $p<0.05$ ). 3) 상지 및 하지의 기능이 나쁠수록 이완측의 요골 및 대퇴골의 골밀도가 낮았다( $p<0.05$ ).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근력 약화로 인한 활동 저하가 골밀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병기간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마비정도가 심할수록 골밀도가 더욱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활동 저하가 골다공증의 발생에 대한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